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6/02~2025/06/08]

2025.06.09

[로봇] 표준 주도권 경쟁

- HD현대로보틱스도 협동로봇 진출. 내년 산업용 로봇 강점 살린 하이브리드 협동로봇 출시
- 중국도 휴머노이드 표준 제정.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표준 제정에 나서
- 중국 정부의 휴머노이드 투자 규모는 어느덧 13조원을 넘어섬

[방산] 활발한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 말레이시아 이후 오랜만에 필리핀 고정익 1조 수주. 재구매라는 점에 큰 의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벨류업 공시. 11조원 투자하고 주주환원 확대 계획
- 나토 GDP 대비 5% 지출 목표 잠정 합의. 영국도 역대 냉전 후 최대 방산 투자 추진

[항공] 역풍 속, 눈높이 낮추기

- 신정부 취임. 안전 및 MRO 강화는 비용 부담. 내수 부양책은 기대
- LCC들 지방발 국제 노선 취항 잇달아. 단독 노선 확보 총력
- 에어버스의 항공기 인도는 전년대 저조. 보잉은 MAX 생산량 38대 회복

[조선] 치열해지는 해외 잠수함 수주戰

- 5월 한국 조선 점유율 15%. 중국은 39%
- 해외 잠수함 사업 양문. 폴란드는 독일 등 선두. 캐나다도 경쟁 격화
- 미중 관세 휴전 속 SCFI 5주 연속 상승세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표준 주도권 경쟁

중국이 휴머노이드 지능 관련 표준을 제시. 산업 주도권 확보 의지로 판단됨. 미국도 휴머노이드 관련 표준을 ISO에 제출. 기술 선도 국간 표준 경쟁이 본격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3)

[표준 주도권 경쟁]

-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는 주요 기관 및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 분류(T/CIE 298-2025)를 발표. 휴머노이드 지능을 4개의 핵심 역량 차원과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핵심 역량 차원:** 지각 및 인지(P), 의사결정 및 학습(D), 실행 및 수행(E), 협력적 상호작용(C)
 - ***지능화 수준:** L1, L2, L3, L4, L5로 기초적인 단일 기능 → 인간 유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능의 발전 단계 정의
- 중국은 선제적으로 표준 제정에 나서고 있음. 산업 주도권 확보 의지로 판단. 미국도 미국 첨단자동화협회(A3) 및 어질리티로보틱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포함 균형 유지형 로봇 안전 표준안을 ISO에 제출. 미-중 간 표준 경쟁 시작. 휴머노이드 산업도 점차 체계화 되기 시작한 점 긍정적

Key Chart: 중국의 휴머노이드 지능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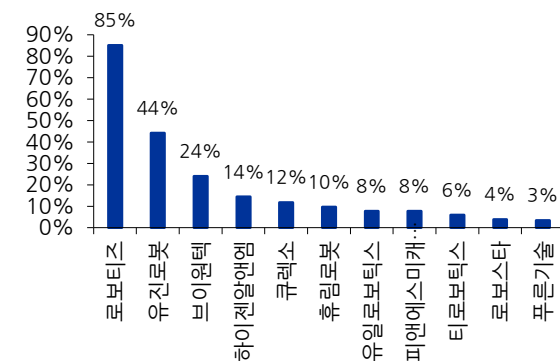
차원	능력 등급	핵심 능력 설명
P 감지·인지 능력	P1-	단일 모달 감지 → 다중 모달 융합 → 상황
	P5	이해 → 융합 영역 인식 → 자율 지식 구성
D 결정·학습 능력	D1-	규칙 실행 → 단순 추론 → 과제 계획 및
	D5	학습 → 지식 전이 → 자기 진화
E 실행·표현 능력	E1-	기초 운동 → 다중 과제 조율 → 도구 사용
	E5	→ 복잡한 작업 → 인간형 유연 실행
C 협업·상호작용 능력	C1-	단일 상태 반응 → 다중 상태 이해 → 감정
	C5	인식 → 개인화 상호작용 → 집단 협동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6/02~06/08)

[산업용 로봇]

- HD현대로보틱스, 하이브리드 협동로봇 공개 예정
- 뉴로메카,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중. 근시일 내 출시
- 라온테크, 디고객사에 진공로봇 샘플 공급

[서비스 로봇]

- LG전자, 자율주행로봇 조직 해체. 자회사 중심 사업 추진

[기타(정책/부품/SW)]

-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제정 추진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에 5천억 출자 예상
- KAIST 불연속적 지형 고속 이동 가능 4족보행기술 개발
- 테슬라, 엔비디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인셉션 합류
- UNIST,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 적응 로봇 개발 w

[Global]

- 중국 정부, 휴머노이드 투자 규모 13조원 넘어서
- 유니트리, 유연한 휴머노이드 핸드 '텍스 5-1' 발표
- 유니트리, 中 고속도로·항만에 휴머노이드 실증 추진
- 中 애지봇, 신규 로봇 회사 설립
- 中 텐센트, 양팔 로봇 협업 기술 개발
- 테슬라, 옵티머스 개발 핵심 임원 퇴사
- 아마존, 사람 형태 로봇 배송 시험 돌입
- 고스트로보틱스 '손' 달린 로봇개 비전60 공개
- 佛 완더크래프트 휴머노이드, 르노공장서 테스트
- 日 이시바, AI 개발 및 활용 기본 계획 연내 책정 지시
- 일본 엡손 25년중 협동로봇 출시 계획
- 베트남 빈 그룹, 베트남 최초 휴머노이드 공개



Weekly Keyword

활발한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는 중. 지난 주에만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 나토는 국방비 5% 지출 목표에 잠정 합의했고, EU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 위한 재정 준칙 완화 요청에 나서는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31)

[활발한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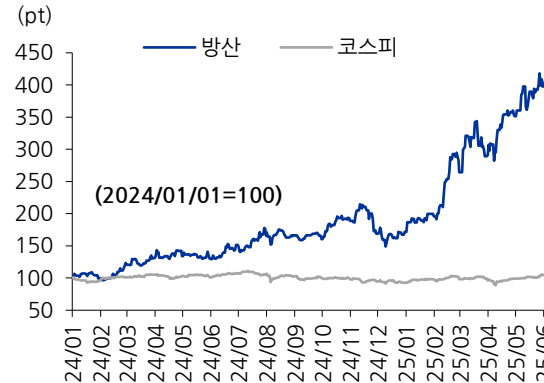
- (1) 6월 24일~25일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나토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2%에서 5%(간접 지출 1.5% 포함)로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상태
- (2) 유럽 재무장 계획 속 재정 준칙 완화 요청에 EU 27개국 중 16개국이 신청(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 (3) 영국이 전략방위검토 2025(SDR)을 발표. 30년대 후반까지 126조 원 투자 필요성 제기. 영국은 국방력 강화 및 군 현대화를 위해 핵탄두, 핵잠수함, 전략 항공기, 장거리 미사일 등 대규모 조달 추진. 또한 방산 기반 강화위해 최소 6개의 신규 군수 공장 설립 계획
- (4) 슈피겔에서 방산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보도. 유럽 방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유럽이 처한 안보 상황에 반하는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Key Chart: 나토 국방비 지출 현황(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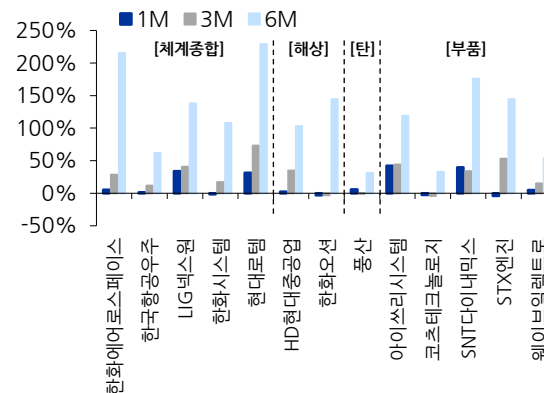


자료: BBC,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6/02~06/08)

[수주/계약]

- KAI, 필리핀에 FA-50 12대 수출 계약 체결. 1조원 규모
- LIG넥스원, 필리핀 현궁-신궁 천공 등 추가 무기 판매 추진
- LIG넥스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국내공급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28년까지 11조 투자. 장기적 주주환원 확대
- 한화에어로, 아시아 안보회의서 글로벌 방산 협력 논의
- 한화에어로, 런던·뉴욕 기관투자자 대상 로드쇼 개최
- 尹정부 때 임명된 강구영 KAI 사장, 새 정부 첫날 사의
-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9대' 추가 인도
- 한화시스템, 유텔셋 원앱 지분 전량 매각. 군 위성 집중

[기대]

- 방산 컨트롤타워 강조한 이재명, K방산 수출 탄력받나

[글로벌]

- 나토, GDP 5% 국방비 증액 잠정 합의
- 부카레스트나인, 국방지출 5% 목표 지지
- EU 회원국 60%, '국방비 증액' 부채규정 면제 요청
- NATO 지대공 미사일 방어 투자 5배 증강
- 보수 성향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차기 대통령 당선
- 영국, 핵탄두, 핵잠, 미사일 등 냉전후 최대 방산 투자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 다수 폭파
- 우크라이나 국방 "올해 우방서 2조원 무기생산 지원"
- 스페인, 이스라엘과 체결한 대전차 미사일 계약 파기
- 인니, 파키스탄 충돌 활약 중단투기 J-10 구매 검토
- 태국 전투기 그리펜 선정. F-16 패퇴. 절충교역 경쟁력 차이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역풍 속, 눈높이 낮추기

수요 불확실성 확대 속 IATA가 올해 항공사 이익 및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 2024년 보다는 약간의 성장 달성 전망.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 요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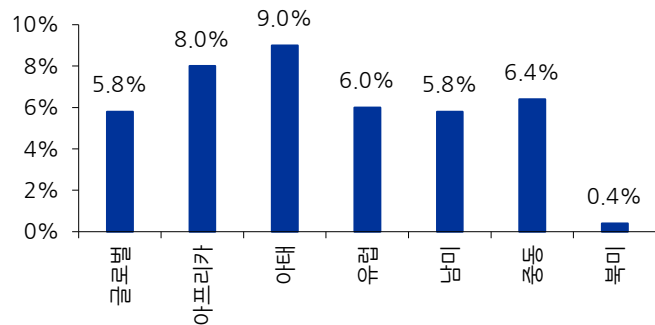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1)

[역풍 속, 눈높이 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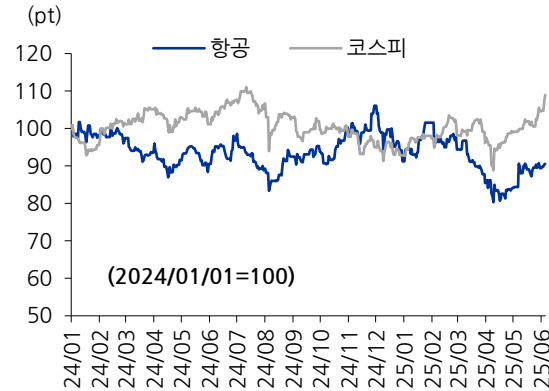
- IATA가 항공업계 재무 전망을 업데이트. 여전히 2024년 대비 수익성 및 여객 수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존 2025년 예상치는 하향 조정. 무역 갈등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수요 불확실성 존재하나, 항공유 가격 하락 등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소
- 항공사들의 2025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660억달러(+7%yoy), 360억달러(+11%yoy)로 추정. 기존 675억달러, 366억달러에서 소폭 하향 조정. 여객 수는 49.9억명 예상. 2024년 대비 4% 증가하나, 기존 예상치는 52.2억명이었음. 탑승률은 연 평균 84%로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지역별로는 아태가 RPK 기준 전년대비 9% 성장하며 가장 가파르게 성장 전망. 북미는 0.4% 성장에 그칠 전망

Key Chart: 2025년 RPK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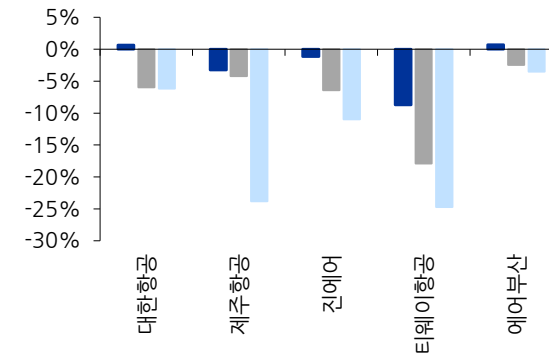
자료: IATA,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 1M ■ 3M ■ 6M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6/02~06/08)

[여객/화물]

- 지방공항 첫 중앙아시아 노선. 부산~타슈켄트 취항
- 티웨이항공, 8월 15일 제주~싱가포르 신규 취항

[기업별 이슈]

- KE-OZ 마일리지 통합 임박. 탑승 마일리지는 1:1 유력
- VIG, 이스타항공 300억 규모 CB 조기 상환 추진

[기타]

- 이재명 정부, 항공업계 공약 '안전', 'MRO 확대' 내걸어
- 항공업계, 새정부 내수 부양책에 기대
- 국토부, 내년부터 항공사 평가에 '지연 시간' 반영
- 여행업 최대 최대. 1~5월 승객 1100만명 훌쩍 넘어
- 日 하네다 입국심사대 16개 중 6개 '한국 전용'
- 인천공항, 에어카고 유럽 2025 참가해 화물 역량 홍보
- 美도, 韓도 불황형 휴가 '스테이케이션'. 해외 대신 옆동네

[글로벌]

- 中, 美 보잉 항공기 도입 두 달만에 재개
- 에어버스, 5월 인도량 작년 대비 4% 감소
- 보잉, 2020년 이후 처음으로 737 MAX 38대 생산
-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 항공기 200대 구매 추진
- 터키항공-타이항공,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 유럽 에어버스 최대 500대 주문 검토
- IATA, 글로벌 항공사 순이익 전망 하향 전망
- 제트블루 CEO,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합병 반대
- 말레이 캐피탈 A, 1~3월 결산 흑자 전환
- 베트남항공, 5년만에 흑자. 1조 2천억 규모 증자



Weekly Keyword

치열해지는 해외 잠수함 수주戰

올해 윤곽이 밝혀질 폴란드 및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럽의 공세가 심화되는 중. 폴란드 오르카는 독일/스웨덴/이탈리아가 유리하다는 평가. 캐나다도 독일과 노르웨이가 마케팅 협력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

[치열해지는 해외 잠수함 수주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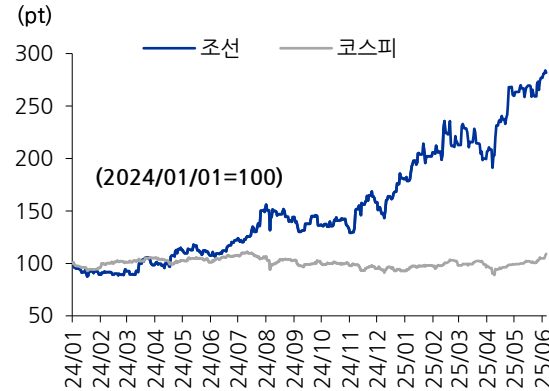
- 유럽 기업들과 특수선 수출 프로젝트 경쟁이 심화되는 중. 여전히 남기 관점에서는 한국이 경쟁우위. 수주 확인까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가 연내 발주 예정인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독일과 스웨덴, 이탈리아의 제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 현재 Naval, Navantia, TKMS, SAAB, Fincantieri,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경쟁 중. 한화오션은 수주 후 인도 전까지 KSS-1 잠수함 1척 임대 + 폴란드 MRO 센터 + 1억 달러 투자 설립 등을 제안 중으로 알려짐
-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독일이 노르웨이와 협력하여 적극 마케팅 중. 캐나다가 유럽 주도의 ReArm EU 참여시 EU의 각종 우대 조치 수혜 가능할 것이라 어필. 한국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초도함 인도 시기인 2035년에 1척이 아닌 4척을 선공급하고, 인도 전 한국 내 훈련 제공, MRO 시설 설립, 기타 지상장비와의 패키지 딜 등을 제안 중

Key Chart: 해외 함정 수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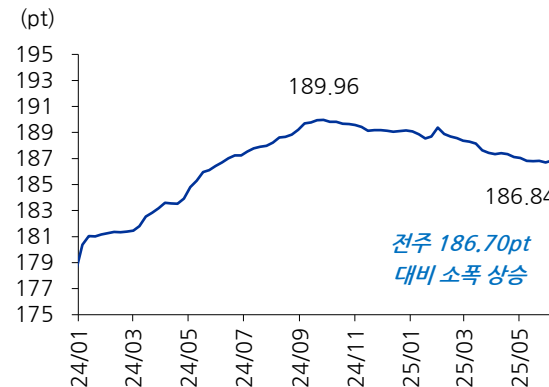


자료: 한화오션,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02~06/08)

[상선/해양]

- HD현대, 日 닛센카이운서 LR2탱커·LPG선 총 5척 수주
- 퓨러스, 현대중공업에 18만m³급 LNG 운반선 1척 발주
- K-조선, 5월 수주 2위.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은 우위
- HD현대상호·삼성중, 모잠비크 LNG선 건조의향서 또 연기
- VLCC 시장, 노후선 교체·석유 수요 증가에 발주 행렬
- 팬오션, 5년 만에 VLCC 2척 신조 발주

[특수선]

-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독일·스웨덴·伊 선두. 연말 최종 선정
-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독일·노르웨이 한국 조선사 협공
- 캐나다 차기잠수함 사업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 콜롬비아 해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전격 방문

[기타]

- SCFI 5주 연속 상승. 2,200대 진입. 미중 관세전 휴전 여파
-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 한국선급, HD현대중공업과 초대형 에탄올운반선 공동개발
- KR-HD한국조선해양 액화가스운반선 화물탱크 설계 협약
- 한화오션,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박차
- 한화오션, 英로이드선급과 손잡고 "K-함정" 수출 본격화
- MOL-삼성중공업, 선박 연료전지 승인 확보
- HD현대, 한화오션 2025년 임단협 난기류
- 北 구축함 균형성 완전복원·재검사 후 복구

[글로벌]

- 그리스 폴렘브로스, 中서 LR2 탱커 4척 추가 발주
- 인도네시아, 조선업 역량 강화 위해 중국과 협력 고려